행복한 교회
자라나는 우리



소그룹 모임 사진 - 들풀 조. 바라만 봐도 행복해지는 우리의 미소!
(예수님 안에서 행복한 윤재연, 유은희, 이수민, 김현지, 노영숙)



즐거운 마음으로 유치부 예배를 시작해요!
(사랑스러운 예수님의 아이들_김이든, 허이레)

예배 순서

묵도와 부름		인도: 오종향 목사
사도신경		
찬 양	새 힘 얻으리 내 평생에 가는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인도자+찬양팀
합심 기도		
성경 봉독	전도서 11:9-10; 12:1-7	김하람/일어서서
설 교	창조주를 기억하라	오종향 목사
결단의 침묵		
응답 찬송	주를 앙모하는 자	
헌 금		
안 내		
축 도		
점심 친교		다같이
조 모 임		*방문자/새가족은 오종향 목사와 함께

성경봉독 청소정리

6/21 김하람 6/21 들풀조
6/28 오연총 6/28 헤세드조

교회 소식

QR코드로 확인하세요

유치부 주일예배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

11:00-12:10
2층 교육부실

초등/청소년 양육반

예수마당 / 어성경 구약반

초등부: 10:00-10:50
청소년부: 13:00-14:00
2층 교육부실

금요기도회

엘리야의 능력 기도 (4)

금요일 저녁
19:30-20:30
3층 예배실

리딩지저스

(역대하 13~23장,
열왕기상 16~22장, 오바댜서)

담임: 오종향 목사

- 교육: 최은총 전도사, 교사: 유은희
- 조장: 김성배, 김순영, 김재강, 김현지, 손이숙, 우문주, 유은희, 이수민
- 찬양팀: 김성배, 이성은, 노영숙, 은원철, 문영식
- 후원 선교사: 김남진/김성은 (유럽 기도 선교), 임일혁/송경남 (캐나다 이주민 선교), **하**/강** (동남아시아 무슬림 선교), 조샘 (라이프스타일 선교운동)**
- 자비 사역 (구제, 구호): 유니시드(북한 이탈 학생 장학), 시선오브(자립준비청년 돌봄), 이천 꽃피는봄날 보호종료아동(생계 지원), 소망을 찾는 이(노숙자, 쪽방촌)

오늘의 말씀

대표 낭독자: 김하람 (다같이 일어나서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전도서 11:9-10; 12:1-7

11장
9. 청년이여, 네 젊음을 즐거워하여라. 네 젊은 시절을 마음으로 기뻐하여라. 네 마음이 가는 대로,
네 눈에 보이는 대로 따라가거라. 다만, 이 모든 것들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아라.
10. 그러므로 네 마음에서 근심을 떨어내고 네 몸에서 악을 떨쳐 버려라. 어린 시절과 젊은 시절은
허무한 것이다.

12장
1. 젊은 시절에 너는 네 창조자를 기억하여라.
고통의 날들이 닥치기 전에 "인생에 낙이 없다"라고 할 때가 오기 전에
2.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두워지기 전에, 비 온 후에 다시 먹구름이 끼기 전에 그렇게 하여라.
3. 그때가 되면 집 지키다가 손이 떨리고 다리에 힘이 빠져 엎어지고
이가 몇 개 안 남아 씹지 못하고 눈이 침침해져 창문 밖으로 보이는 게 없어진다.
4. 또 거리로 나가는 문들이 닫히고 곡식 가는 소리가 어렴풋해지고 새 소리에 일어나며
노래하는 모든 딸들이 조용하게 될 것이다.
5. 또 높은 곳을 두려워하게 되고 길에 나다니기조차 무서워하며 머리 위에는 허옇게 꽃이 피고
메뚜기도 짐이 되며 욕망이 더는 일어나지 않을 그때, 그때가 되면 사람은 자신의 영원한 고향으로
가고 조문객들이 슬퍼하며 거리를 다니게 될 것이다.
6. 그분을 기억하여라. 은줄이 끊어지기 전에, 금대접이 부서지기 전에, 물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어지기 전에, 우물가의 도르래가 부서지기 전에,
7. 육체가 본래 왔던 흙으로 돌아가기 전에, 영이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그분을 기억하여라.

다같이: "주여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받겠습니다."

소그룹 나눔

1) 오늘 설교를 듣고 가장 와닿은 한 가지는?

2) 오늘 주신 메세지를 내 삶에 연결한다면?

창조주를 기억하세요

나이 드는 것이 두렵지 않으세요?
세상은 나이 드는 것을 쇠퇴라고, 낡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젊음을 붙잡으려 애쓰고, 나이 드는 것을 부끄러워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성경은 전혀 다르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전도서 12장은 늙어가는 우리 몸을 정말 솔직하게 그립니다.
손이 떨리고, 등이 굽고, 이가 빠지고, 눈이 흐려지고, 목소리가 약해진다고요.
하나도 미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솔직한 그림이 절망으로 끝나지 않아요.
단 하나의 말씀으로 향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전 12:1).

여기에 나이듦을 이기는 비밀이 있습니다.
새 힘은 내 안에서 짜내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내려와서 새옷처럼 입혀지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노래했어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사 40:31).
여기 "새 힘을 얻으리니"는 낡은 옷을 벗고 새 옷으로 갈아입듯 힘을 교체한다는 뜻이에요.
독수리가 깃을 갈아 다시 창공으로 솟구친다는 비유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담대하게 고백했어요.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고후 4:16).
겉사람이 낡아가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집니다.
한쪽이 비워질수록 다른 쪽이 채워져요. 이것이 부활을 몸으로 살아내는 신앙입니다.



저는 우리가 이렇게 나이 들면 좋겠어요.
시편은 의인을 늙어도 여전히 푸르고 결실하는 감람나무에 비유합니다(시 92:14).
마르고 시드는 나무가 아니라, 늙을수록 더 열매 맺는 나무예요.
우리는 청년 같은 노인이 될 거예요.
나중에 나이가 들면, 50 같은 80, 60 같은 90으로 살 거예요.

뒷방에 앉아 대접받는 사람이 아니라, 일어서서 섬기는 사람으로요.
음식을 받아먹는 사람이 아니라, 음식을 만들어 사람을 살리는 생명 사역자로요.
영원한 청년으로 현장을 누비며,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안해본 일에 도전하고,
실패를 겁내지 않고 용감한 믿음의 사람으로요.

그리고 청소년과 청년들에게 부탁하고 싶어요. 청청한 노목은 우연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집에 심겼"기 때문이에요(시 92:13). 젊을 때 어디에 뿌리내렸느냐가 노년의 결실을 결정합니다.
그러니 청년의 때를 어영부영 흘려보내지 마세요. 오늘이라는 시간을 살려내세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경건을 지금 연습하세요. 참 경건에는 큰 혜택이 따릅니다.

부활신앙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선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 일어섭니다.
하루하루, 한 주 한 주 다시 일어서요. 겉사람은 낡아가도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는
— 이것이 우리의 노년이요, 우리의 청년입니다. 우리는 늙어가지 않아요. 우리는 날마다 새 힘을 얻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이 이 새 힘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느 자리에서든 창조주를 기억하며, 여전히 푸르게 살아가시면 좋겠어요.
— 여러분에게 날마다 새 힘이 솟기를 기도하며 오목사 드림